

주목! 이사람



박태선 농림광주본부장은 28일 오전 7시 30분 신양파크호텔서 개최되는 '금요조찬회'에 참석한다.

삼성전자 임직원 1주일 해외 교육봉사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이달부터 동남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주일 현장 교육봉사' 활동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6일 "이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미얀마, 페루, 가나, 네팔 등 7개 국가에서 임직원 250여명이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삼성전자 임직원 해외봉사'는 개인 연차를 이용해 1주일간 해외에서 지역별 맞춤형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세제간에서 임직원 봉사단이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아프리카, 인도, 남미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며 지난해까지 총 35개국에서 1천300여명의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파견 지역에 IT 교실을 구축해 주고, 임직원들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현지 학생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IT 교육과 함께 현지 유망 직종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도 한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떠난 60여명의 임직원들은 29일까지 현지에서 머무르며 컴퓨터 수리법, PC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 시작 내달 28일~9월22일까지 접수

우리은행이 하반기 정기 공채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2017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 행원' 공채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채용부서는 일반직 신입 행원과 정보기술(IT) 부문 신입 행원, 디지털 부문 신입 행원이다.

일반직 신입 행원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일반과 지방에서 근무하게 될 지역전문가로 나누며, 지역전문가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졸업(예정)자로 구분된다.

채용규모는 지난해 채용자(150명)의 두 배인 약 300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원 자격요건에 학력과 연령 등 자격요건을 폐지했다.

또 입사지원서에 자격증, 어학 점수 항목을 없애고, 100%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직무특성과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내달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채용 절차는 1차 면접과 인·적성 검사,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하나카드, 무이자할부 행사

하나카드는 주요 10대 업종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가전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온라인쇼핑, 여행, 항공, 면세점, 병원, 순례보험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모든 고객에게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10개월, 15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 부분 무이자 1~2회차 할부 수수료로 고객이 부담하면 나머지 8회차는 무이자 적용되고, 15개월 부분 무이자 1~3회차 할부 수수료만 내면 나머지 12회차는 무이자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 국제와 지방세, 4대 보험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계속된다.

홈플러스 하나카드 마케팅본부장은 "무이자 할부를 통해 카드대금 결제 부담을 줄이고 더욱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지난달 미분양주택 감소율 전국 최고

상반기 인허가는 급증...공급과잉 우려

광주·전남, 2분기 오피스 임대료 '뚝'

25.8% 공실률 ↑...투자수익률 전국 최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미분양주택이 감소한 가운데 광주지역 미분양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지역 올해 상반기 인허가 실적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주택 증가 우려감은 높은 상황이다.

26일 국토교통부의 '2017년 6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미분양주택은 804가구로 전월 1,326가구보다 39.4%(522가구) 감소했다.

광주는 지난 4월 1,392가구에서 5월 1,326가구, 6월 804가구로 2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약심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

택'도 254가구로 전월보다 3.4%(9가구)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는 1만5,504가구로 전년동월 1만311가구에 비해 50.4% 증가하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감은 높은 상황이다.

전남지역 미분양주택은 935가구로 전월 979가구보다 4.5% 감소했다.

전남지역 미분양주택도 지난 4월 1,023가구, 5월 979가구, 6월 935가구로 감소세

가 지속됐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412가구로 전월 415가구보다 0.7%(3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미분양주택은 봄 이철이 끝나면서 계절적 비수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물량 조절에 나섰고, 정부의 6·19부동산 안정화 대책, 대출 금리 인상 예고 등과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

어지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지난 2분기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전분기보다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을 보인 가운데 투자수익률도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오피스 m당 임대료는 5만 6,000원으로 전분기대비 1.2% 하락했다.

광주는 상무지구 상권에서 대체가능한 나주혁신도시 오피스 공급과 높은 임대료 수준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며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했다.

전남지역 오피스 m당 임대료는 5만 1,000원으로 전분기대비 0.6% 하락했다.

광주·전남지역 임대료가격지수는 전국 평균(0.0%)을 하회하며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 투자수익률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며 가장 낮았다.

광주지역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01%, 전남은 1.02%에 그쳤다.

광주는 금남로·충장로 상권의 높은 공실률(25.8%)과 전반적인 임대료 하락으로 낮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 2017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사 약 310여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서미애 기자

전남 운송업계 "금타 매각 정부가 나서야"

채권단 불공정한 매각... '호남경제 죽이기' 안돼

전남지역 운송업계들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금호타이어 해외 부실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전남운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전남개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4개 단체 대표들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불공정한 매각 절차와 불합리한 매각 조건을 강요하며 호남 지역민들로부터 금호타이어를 빼앗고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무너 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지역 운송업계는 지역경제를 대표해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을 결사반대 한다"며 "산업은행의 부실 매각 중단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 정부의 무관심과 산업은행의 부실매각으로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넘어갈 경우, 지난 57년간 이룬 금호타이어의 모든 자산과 기술을 송두리째 중국에 넘겨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의 5분의1 밖에 되지 않는 더블스타가 인수할 경우 과도한 차입과 브랜드 저하로 인해 과거 쌍용차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먹튀는



26일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서 전남지역 운송업계 대표들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볼 보듯 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회를 통과했고,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도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이제는 정부가 호남 지역 최대 현안인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 금호타이어 문제를 산업은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추진 중인 해외 부

실 매각을 즉각 중단 시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압도적인 지지로 보내준 호남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며 "현재 금호타이어 임직원 전체와 지자체, 사회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매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운송업계도 앞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매각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금호고속, 방학·여름철 맞아 피서지 운행

광주~대천·명사십리 등 특수노선 개통

금호고속은 여름방학과 피서철을 맞아 광주에서 유명 해수욕장(대천, 명사십리)과 영암 기간랜드 노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대천해수욕장 노선은 다음달 20일까지 운영된다. 광주에서 1일 2회(오전 11시10분, 오후 2시10분) 출발한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 45분, 이용 요금은 1만 3,900원이다.

광주~명사십리 노선은 다음달 15일까지 운행되고 광주에서 1일 4회 출발한다. 소요시간은 2시간 20분, 가격은 1만6,900원이다.

금호고속은 여름철 웰빙 피서지를 찾

는 고객을 위해 광주에서 영암 기간랜드를 경유하는 노선도 지난 21일부터 운영 중이다.

기간랜드를 경유하는 광주발 영암 노선은 오전 7시와 7시 25분, 7시50분, 8시 30분, 8시50분, 10시10분 출발하며 편도로 운행된다. 소요시간은 약 55분, 가격은 6,900원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지를 찾는 고객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고객 편의 차원에서 기간 특수 노선을 개통하게 됐다"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금타, 구매고객 쿨서머 이벤트

'토틀렛 핫스프' 휴경기 관람 이벤트

금호타이어가 28일부터 8월31일까지 프리미엄 타이어 4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손흥민 소속 구단인 영국 명문 축구구단 토틀렛 핫스프 휴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쿨서머 이벤트'를 실시한다.

구매 고객 모두에게 토틀렛 더블백을 증정할 뿐 아니라 ▲1등 2명에게는 토틀렛 휴경기 관람권 및 항공·숙박권 총 4명(동반 1인 포함) ▲2등 3명 손흥민 선수 사인 휴저지 유니폼 ▲3등 5명 손흥민 선수 사인 축구공 ▲4등 50명 토틀렛 응원 머플러 ▲5등 100명 토틀렛 크로스 슬터

백이다. 추경 발표는 오는 9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제프는 금호타이어의 승용차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 엑스타 PS71, 엑스타PS91과 SUV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크루제 HP91, 크루제 HP71 전 가격으로, 행사는 금호타이어의 특화유통점인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에서 참여 가능하다.

이반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미애 기자

aT, 하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입학식

농식품 유통혁신·식품산업육성 창조경제 육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2017년 하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26일 aT에 따르면 농식품마케팅대학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원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농산물 유통개선과 식품산업을 선도할 핵심 전문 인력 3,000여 명을 양성해온 농식품 산업 리더 육성 교육기관이다.

관이다.

이반 입학식에는 농산물 마케팅 경영인·전문가, 농식품 미래유망 혁신리더, 농식품 대량수요처 경영인·전문가 등의 3개 과정에 유통종사자와 식품·외식업계 임직원 등 105명이 입학했다.

입학식에 앞서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성장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미애 기자

"축제현장 종이스탬프 스마트폰으로"

전남 벤처 스탬프, 내달 1일 모바일 앱 출시

축제장이나 주요 관광지에서 쓰이던 종이 스탬프가 스마트폰에 옮겨져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솔루션 개발업체 핏츠잇(대표 박승하)은 다음달 1일 축제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축제스탬프 앱은 전국 축제 현장에서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시행 중인 종이 스탬프 투어를 모바일로 구현한 것이다. 복잡한 축제 현장에서 스탬프 종이를 분실하거나, 잉크가 손에 묻는 등의 각종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 서비스다.

박승하 대표는 "축제스탬프 앱은 국내



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시기별로 안내하고, 축제관리자와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며 "방문객들이 축제스탬프 앱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축제를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일본 고교생들 "금호아시아나 초대로 왔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 일본 청소년 한국 초청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제10회 금호아시아나배 일본지역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한 일본 고교생 16명을 한국에 초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반에 방문한 일본 청소년들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아시아나항공 본사 및 광화문, 서울시청, 장경궁, 수원화성 등 국내 주요 명소를 돌아보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한다.

이밖에 최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

는 경회록 국제교육원에서 3주간 어학 연수를 받는 기회가 주어진다.

'금호아시아나배 일본지역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지난 200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자가 5,028명에 달하며, 일본의 명문대인 리쓰메이칸대학에서 본선대회 진출자에게 입학전형 시 특전을 부여하는 등 명실상부 일본 내 최고 권위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오사카, 후쿠오카, 가고시마, 아오모리 등 일본 각

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4명이 참가하여 일본 고교생들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6일 이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젊은 청소년들의 교류를 위해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10년째 진행해왔다"며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로 청소년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나아가 미래의 우호친선 대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미애 기자